

# 中企 42% “석달 못 버텨… 대출↑ 금리↓ 등 착한금융을”

중기중앙회 407곳 대상 긴급조사  
10곳 중 7곳 6개월 이상 힘들어  
김기문, 패스트트랙 대출 도입  
금융권 착한금융 확대 등 당부  
고용 지원금, 이자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 대책 필요 목소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문제는 '돈'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뜰이나 빈약했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통장 잔고가 더욱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전국의 중소 제조·서비스업 407곳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해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10곳 중 4곳은 3개월을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곳은 10곳 중 7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골든타임'을 놓

치지 않도록 배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입대'에 이어 '착한 금융'도 함께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보면 대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여럿 있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로 망한 곳은 없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어려운 시기에 주저없이 자금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부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남 서울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7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소

상공인·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 덕분에 일단 현장에서 큰 시름은 덜었지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이심사 방식을 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보증과 마찬가지로 대출도 '체크리스트 심사방식 패스트트랙 대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금 대출 증가로 유동성이 일시

적으로 부족한 금융기관을 위해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들이 은행과 매칭펀드를 조성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민간 스스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까지 내놨다.

김 회장은 "대기업이 유보금을 활용하고 금융기관이 무이자로 매칭해 자금을 공급, 1~2차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많이 시행됐던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이 너무 높아 은행 대출이 자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금융기관이 보증서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등 간담회에서 현장의 수 많은 애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 등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급한 불을 끄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유급휴업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소상공인에 대해선 전액 지원, 중견기업에는 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원한도 역시 현행 일 6만6000원(월

198만원)에서 일 7만5000원(225만원)까지 늘리고, 요건도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려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기업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자동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조만간 소책자를 발간해 적극 홍보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전시업 외에 다른 업종에도 코로나19 충격 여파가 큰 만큼 수출제조업, 공예 등 장식용품 제조업, 급식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까지 지정을 확대해야한다고 권유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범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전국민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내 여행가기, 지역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부-중진공, 연수원 치료센터로 개방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해외서 입국한 경증환자 수용

'창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 안산의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치료센터로 쓰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경증환자를 위해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기숙사 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그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 장소로 활용돼 왔다.

중진공 조정권 이사장 직무대행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적 장점을 갖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뉴스1

추고 있어 이번에 생활치료센터로 개방하게 됐다"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코로나19' 확진자 완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수원 내 생활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총괄 관리하며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정부 부처 및 7개 유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유럽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 가운데 양성판정을 받은 경증환자가 입소해 생활하게 된다. 확진자가 입소해 생활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소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된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실시되는 진단검사서 2회 음성판정이 나오면 퇴소하게 된다.

중진공 박윤식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재난수준인 비상사국에 공공시설을 개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안산시, 그리고 중기부와 중진공이 함께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웹케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공동마케팅 등 업무 제휴

웹케시는 경리업무 자동화 및 업무 편의 증대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 제휴는 웹케시의 경리 전문 소프트웨어 '경리나라'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8000여 조합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조합 회원사대상 경리나라 마케팅 확대 ▲경리나라 교육장 운영 추진 ▲회원사 대상 교육 및 교육장 운영 등을 위해 협력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 한세실업, 밝은 사내문화 위한 캠페인 전개

한세실업은 긍정적인 사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한 세상 한세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업무에만 집중해 둘러보지 못했던 동료들과 친밀감을 높이고, 밝은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캠페인에는 인사하기, 사원증 패용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한세실업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침체된 사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임직원과 함께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캠페인 기획에 직원들 아이디

어가 반영돼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포스터는 사내 연구개발(R&D)본부 공모전을 통해 선발됐으며, 표어 또한 '한 세'를 주제로 직원들에게 공모한 결과물이다. 캠페인은 한세실업 P&C팀에서 주관한다. 한세실업은 2019년 P&C팀을 신설해 직원 고충을 수용하고 사내 분위기를 개선하는 등 임직원 복지 및 근로의식 향상에 힘써왔다. P&C팀은 그동안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일자 조기퇴근제, 샌드위치데이 휴무, 12월31일 휴무 등의 복지를 제도화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김승호 기자

## 중소유통센터, 울산항만공사 동반성장몰 열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울산항만공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항만공사 동반성장몰을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반성장몰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상생형 온라인 쇼핑몰로 입점 중소기업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고객인 공공기관은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 복지 향상을 위한

'울산항만공사협력사 복지포인트제공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사는 내달 중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동반성장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해 지역소재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시몬스 따뜻한 침실 연출 '케노샤' 신제품

시몬스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베딩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케노샤'는 시몬스 침대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으로 침실 공간을 '시몬스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베딩, 퍼니처, 프래그런스, 베스 컬렉션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신제품은 화이트, 베이지 등 차분한 색상과 간결한 직조 방식을 사용해 세련되면서도 산뜻한 느낌을 살렸다. 또한, 특급 호텔의 침구에만 업선되는 최고급 소재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촉감과 뛰어난 내구성을 구현했다. '프란시스 큐비츠'는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난 선염 원단에 김업체크 무늬를 적용해 내추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제품이다. 잘게 짜인 격자 무늬의 패턴이 베이지 색상과 어우러져 따뜻한 침실 느낌



시몬스가 새로 선보인 케노샤 '프란시스 마르테'를 연출한다.

'프란시스 마르테' 역시 블랙과 화이트 김업 체크 패턴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살렸다. 촘촘한 격자 무늬를 적용해 간결하고도 세련된 베딩 스타일을 완성한다. '프란시스 바슈'는 퓨어 린넨 100%의 부드러운 원단 위에 입체감을 살린 독특한 격자 무늬가 침실에 개성을 더한다. /김승호 기자